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pm
- 주일 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간 성경 공부 Bible Study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 훈련 Discipleship Class / Mon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

건강한 믿음 성장의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33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하나님 앞으로 경배와 찬양 찬양팀과 함께

기도 김 윤 경 사모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 말씀

요한 1서 4: 1-6, 14-15 (신약 391쪽)

말씀 선포 / 김 성 배 목사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

결단의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 들어"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 헌 구 은 강 / 최 내 권 집사

봉헌 찬송 213장 "나의 보화 드리니"(4절)*

삶과 세상 속으로 찬양 마라나타 *

축복 기도 김 성 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목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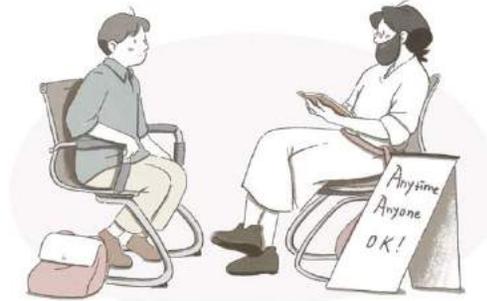
찬양과기도

성경: 사무엘상 16:1-5

목상제목: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친히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물음에 답해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헛된 길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을 먼저 예배해 보세요.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나아 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해야할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속으로라도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만나야 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기도

하나님. 때론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더 잘하신다는 진리를 믿게 하소서.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사단은 우리에게 불행해질 것에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 사단의 울무에서 벗어나려면 그 요구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불행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다. 내 행복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께 네 인생을 거는 순간부터 너는 망하는 거야.”
 “인생의 재미를 보는 건 이제 끝이야.”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일에서 손을 털어야 해.”
 “너,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하러 가라면 어쩔 거니?”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

내려놓으면 모두 잃는다고 속삭인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며 후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다.

이용규 [내려놓음]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역 / 행사

11월 추수의 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섬김, 소망의 인내로 가정과 교회, 이웃과 세상을 섬깁니다.

2023 주제 말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표어: 성장하는 교회

1. **만남과 나눔의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정과 교회, 사업과 직장에서 누리는 주간입니다.
2. **사역간담회** 2024년 계획 간담회를 주일친교 후에 가집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 **Oikos 가정사역** 12월 17일 (박진성 집사 가정)
4. **성경 1독 운동**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문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을 냅시다.
5. **연말 사역 준비** 성탄 감사 주일,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주일
6. **자녀/부모/사업** 한 해의 은혜를 돌아보며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7. **기도 사역** 교회의 사역과 교제,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모범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교우노석 수술과 회복: 박희자 (박진성 집사 모친)
 구은강 집사: 한국 방문(11/28, 3주간)

생일축하 김지수 (2)

11월 사역

박진성 (5)

선교 주일(26) 사역 간담회(26) 만남/나눔 주간(26-12/2)
 Oikos(12/17) 송년감사(31) 신년새벽기도(1/2-13)

❖ 한 주간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 예레미야 33:3

말씀 개요 요한 1서 4:1-6, 14-15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

기도제목

영들을 분별하자.

1. 신앙의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하나님께 속하든 사탄에게 속하든 둘 중 하나이다.
3. 사탄의 이성적, 감성적, 윤리적 논리에 현혹되지 말자

말씀 요약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하였는지 분별하며, 자신의 소속을 확인하자. 하나님께 속한 영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씀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바르게 고백하지를 확인하라고 권면한다.

헬라 이방인들 중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성향이 많았듯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의 시대일지라도,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만약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결국 세상 편에 서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편과 사탄 편에 자신이 어느 쪽 소속인지를 확실히 선포해야 한다.

"나는 어느 편인가?" 성경이 가르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과 사탄보다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분별하자.

사도 시대 보다 지금은 더욱 영 분별이 필요하다. 가치관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성의 논리, 감성의 터치, 윤리의 중립유혹들이 너무나 많다. 이럴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명확히 구별하자. 나의 소속을 분명히 선언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자.

1. 2023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열매맺도록
2.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전도 우리 삶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4.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 사역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네팔, 뉴욕 박은주 선교사
8. 교회 연합과 협력 사역을 위해 / 샬렘교회

예배 섬김이	11월 12일 박진성 집사
	19일 김훈태 집사
주일 기도 인도	26일 김윤경 집사
	12월 3일 최선운 집사

주일 헌금 위원	11월 12일 오정은 / 구민 집사
	19일 구민 / 오정은 집사
	26일 구은강 / 최내권 집사
	12월 3일 최내권 / 구은강 집사

주일 안내	11월 구민 집사
	12월 최내권 집사

섬기는 사역자	지도 목사(Lead Pastor) 김성배 목사
	찬양 인도자(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교육전도사(Youth Pastor) Jacob Kim 전도사
